

環境오염문제 電話상담

784-2003 '녹색의' 28일개원

환경오염문제를 상담해주는 녹색의 전화상담실(784-2003, 4)이 28일 문을 연다.

서울 여의도소재 여성백인회관 2층에 자리잡은 이 녹색의 전화상담실(대표 朴英淑평민당의원)에서는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구제,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무료로 알려준다.

월~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에 상담요지의 설명을 듣고 상담신청을 받아 전화로 답변이 가능한 것에 한해 전화상담을, 자료를 갖고와서 상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주 화·수·금요일에 한해 편집상담한다. 또 현지를 확인해야 하거나 상담신청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방문상담도 해준다.

90.8.27.국민.

“이웃의 공해 피해 아픔 방관할 수 없어”

「환경보전운동은 곧 생명보전운동입니다. 진폐증 환자가 전국에 1만2천여명이나 되고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는데 현실 속에서 그들과 아픔을 나누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보사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팔당호 골재준설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비롯해 설악산 자연 파괴현장, 인천 해양오염실태, 서울시 정수장 수질조사등의 조사단장 격으로 활약하며 환경오염의 예방과 피해구제가 무엇보다

오염예방·법률相談 통해 해결책 모색

지난달 28일 여성백인회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층에 '녹색의 전화'라는 환경문제상담실을 개설한 평민당 朴英淑부총재(58)는 누구든 해야 할일에 한발 먼저 나선 것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여성운동계의 중진」으로 보다 더 잘 알려진 朴부총재가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회

다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朴부총재는 국회에서부터 팀웍이 다져진 전문가 법률가 자원봉사자들을 전원 기동, 이 땅을 녹색으로 만드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따라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 상담실에서는 환경오염 예방

이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나 운영에 대한 법률상담도 받고 있다.

「공군사격장의 소음문제로 고통받는 주민, 이황화탄소 중

독으로 사망한 노동자, 방사능 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한 부인... 그들은 모두 우리가 따듯이 감싸안아야 할 이웃이면서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朴부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보듯」방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그것은 그릇된 인식을 고치는 것 또한 과제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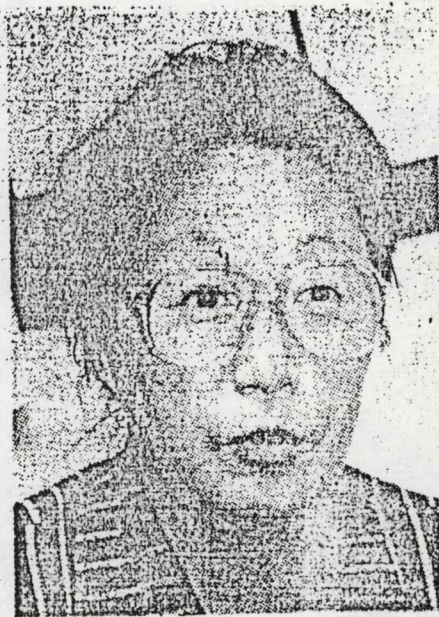
이 때문에 「녹색의 전화」에서는 상담이 법적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법률고문변호인들이 이를 맡아 처리해줄 예정이다.

물론 784국의 2003번과 2004번 두대의 전화로 진행될 전화·면접·방문상담은 모두 무료.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10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먼저 상담신청을 해야한다.

아울러 환경문제는 중앙종합정책이 돼야 하는데 철저히 지방분권화돼있어 행정력이 없다면서, 정부가 분산된 환경업무들을 하나로 모으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申賢秀기자)

녹색의 전화
朴英淑 平民부총재



환경보전운동

90.9.4 국민